

# 4대은행 이자마진 年 20조… “좋은시절 다 갔다”

가계대출 증가·금리상승 실적 견인

KB국민銀, 6조1007억원으로 1위  
올해는 규제 등에 지속가능 미지수

국내 4대 은행이 지난해 이자이익으로 만 20조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규제에도 대출이 꾸준히 늘었고, 금리가 오른 것도 호재가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22조634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이 6조1007억원으로 가장 많았

고 ▲우리은행 5조6510억원 ▲신한은행 5조5860억원 ▲하나은행 5조2972억원 등으로 모두 5조원 이상 이자이익을 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10% 이상씩 늘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6%, 8.2%로 성장세를 보였다.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늘어난 것은 대출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대출도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원화대출

<2018 4대 시중은행 이자이익>

구분	이자이익
KB국민은행	6조1007억원
신한은행	5조6510억원
우리은행	5조5860억원
KEB하나은행	5조2972억원
합계	22조6349억원

/자료=각 사

금은 257조4000억원으로 1년새 9.6% 늘었다.

작년 대출규제 강화 속에서도 가계대출이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8.9%,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기업 각 부문별로 균형있게 10.5% 증가했다.

신한은행 역시 원화대출금이 전년 말 대비 7.2% 성장했다. 대출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부문별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7.5%, 6.9% 증가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개선됐다.

국민은행의 NIM은 지난해 1.71%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신한은행은 1.56%에서 1.62%로 높아졌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NIM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자장사’라는 비난에도 이자이익이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뒷받침이 되면서 은행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다.

신한금융지주는 작년 당기순이익이 3조1567억원으로 7년 만에 ‘3조 클럽’에 재진입하는 동시에 설립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KB금융지주는 순이익 3조689억원으로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2년 연속 ‘3조 클럽’을 달성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작년 순이익도 각각 2조2402억원, 2조192억원으로 나란해 ‘2조 클럽’을 달성했다.

다면 올해도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로 올해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며,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이 NIM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상반기 개선됐던 NIM도 하반기 부터는 주춤하다.

국민은행의 작년 4분기 NIM은 정기예금 비중 확대 등 조달비용 부담이 늘면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0%를 기록했고, 신한은행 역시 0.01% 포인

트 하락한 1.61%로 집계됐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를 도입하는 대출금리산정 개선방안도 은행권에는 부정적인 소식이다.

대신증권 최정숙 연구원은 “당장의 영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NIM 압박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 높다”며 “가계대출의 50%가 코픽스 대출이라는 점에서 향후 2~3년 내에 적어도 0.04~0.05%포인트 내외의 NIM 압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 46개 특허출원

KEB하나은행 해외상품 구매대행 등



KEB하나은행이 최근 블록체인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46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출원을 마쳤다.

KEB하나은행은 그동안 국내 디지털금융 분야를 선도하며 축적해 왔던 수많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후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과 은행업무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외상품 구매대행 방법 및 시스템’, ‘전자계약방법 및 시스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 ‘시재관리방법 및 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특허 출원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선제적이고 본격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지금까지 소개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던 것 이 사실이다”며 “이번 대규모 특허 출원을

## 신한銀, 20대 대상 ‘청춘만만 이벤트’

신한은행은 대학교 신학기 시즌을 맞아 오는 4월 말까지 20대 고객을 대상으로 ‘2019년 신학기, 새출발! S20 청춘만만(滿滿)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0대 고객(1991~2000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첫 거래 이벤트 ▲ 청춘여행 지원 이벤트 ▲ 소문내기 이벤트로 구성돼 있으며, 총 2019명의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첫 거래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기간 중 체크카드를 신규하고, 신한 S20 홈페이지 이벤트에 응모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10만원(1명),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10명), 해피머니 상품권 3만원(30명), SP C 해피콘 1만원(100명), 스타벅스 카페라떼



페(1000명)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20대 고객들이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韓에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협력모델 만들 것”

패트릭 윤 비자코리아 사장 간담회

카드사·은행·핀테크기업 참여 유도  
다양한 이슈 논의하고 솔루션 모색

비자 코리아(Visa Korea)가 국내에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한다. 구체적인 시기,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크고 작은 핀테크 기업과의 의미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패트릭 윤 사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핀테크나 이노베이션에 있어 핫(hot)한 국가이지만 국내에는 이노베이션센터가 없다”며 “한국에도 카드사, 은행 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 만들기 위한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위한 시기, 장소는 아직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이노베이션센터는 비자의 고객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핀테크 시장환경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개발하는 곳이다. 협력사들은 비자 개발자 플랫폼을 통해 비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 소프트웨어 개발 키



패트릭 윤 비자 코리아(Visa Korea)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트(SDK)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비자는 미국과 브라질, 싱가포르 등 7개 국가에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했다.

윤 사장은 “비자 이노베이션센터는 Human Focus Center Design(휴먼 포커스 센터 디자인)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해석하고 솔루션까지 나올 수 있는 토클 페스티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비자 코리아는 이날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Visa Everywhere Initiative(VEI)’ 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VEI 공모전은 세계 각지의 우수한 핀테크 기업이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경합을 벌이는 글로벌 혁신 프로그램이다.

윤 사장은 “오는 5월 핀테크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 모델 중 우승자를 뽑아 상금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또는 싱가폴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결제 생태계를 통해 협력을 포함한 국내 핀테크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s98@

## KB국민은행 외화 홈트레이딩 시스템 배포

KB국민은행은 13일 외화(FX)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인 ‘マイドルーム프로(P ro)’를 배포했다.

マイドルーム프로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시간 시장 환율에 연동된 고객환율로 외환거래를 하는 ‘KB환율픽(Pick) 서비스’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리스크를躲기 위해 선물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한 ‘인터넷선물환거래’를 모아놓은 비대면 종합 외화거래플랫폼이다.

기존 인터넷뱅킹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했던 실시간 통화차트 및 FX거래에 최적화된 최신 사용자환경(UI·UX)을 제공

한다. 이를 통해 FX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딜링룸에 전화할 필요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실시간 환율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다.

기존 KB환율픽서비스와 인터넷선물환거래에 가입한 고객들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마이딜링룸프로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미가입고객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방문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PC방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돼 편의성이 높아졌다.

개인과 법인 모두 마이딜링룸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KB환율픽(Pick)서비스에 가입하면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 10개 통화를 1회당 100달러 이상 최고 100만달러까지 거래할 수 있다. 1일 이용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안상미 기자